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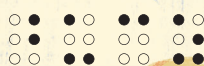
2019
vol.231

10

October



눈으로 보는 세상



시선집중

[성명서] 금융감독원은 시각장애인의 전자금융서비스를 눈 가리고 이용 하지 말라!

테마기획

매년 10월 15일은 '흰지팡이 날'입니다.

인터뷰

첼로의 아름다운 선율을 전하는
한국예술종합학교 김민주 학생

포커스

50대 여성 시각장애인과 18세 소녀가 함께 걷는
산티아고 순례길, 영화 부엔 까미노

목차	02	
점자로 말해요	03	● 훈민정음
시선집중	04	● [성명서]금융감독원은 시각장애인의 전자금융서비스를 눈 가리고 이용 하지 말라!
테마기획	06	● 매년 10월 15일은 ‘흰지팡이 날’입니다.
인터뷰	08	● 첼로의 아름다운 선율을 전하는 한국예술종합학교 김민주 학생
포커스	10	● 50대 여성 시각장애인과 18세 소녀가 함께 걷는 산티아고 순례길, 영화 부엔 까미노
함께 사는 이야기	12	● 커피와 디저트 박람회에 다녀와서 류재성(시각 1급_서울특별시 종로구)
월드 리포트	13	● 시각장애인 엔지니어, 시각 장애인을 돕기 위해 Google지도를 사용하는 '스마트 지팡이' 제작! ● 시각장애인 미용크리에이터 샘 라티프 씨
뉴스앨범	14	● 제33회 편의시설 점검자 양성교육 실시! ● 그윽한 해금의 선율을 들려드립니다! ● 파랑에이전시,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과 '크크키키 어린이 체험동화' 업무협약 체결! ● 2019년 보행지도사 실습교육 실시!
시각장애인을 만나면	16	●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대해주세요!

10월 9일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한글날인데요.

훈민정음은 점자로 어떻게 나타낼까요?



훈민정음

읽기용

점 자 일 랑 표																
자 음	ㄱ ○○ ○○	ㄴ ○○ ○○	ㄷ ○○ ○○	ㄹ ○○ ○○	ㅁ ○○ ○○	ㅂ ○○ ○○	ㅅ ○○ ○●	ㅇ	ㅈ ○○ ○●	ㅊ ○○ ○○	ㅋ ○○ ○○	ㅌ ○○ ○○	ㅍ ○○ ○○	ㅎ ○○ ○○	된소리	○○ ○○ ○●
받 침	ㄱ ●○ ○○	ㄴ ○○ ○○	ㄷ ○○ ●○	ㄹ ○○ ○○	ㅁ ○○ ●○	ㅂ ○○ ○○	ㅅ ○○ ●○	ㅇ ○○ ●○	ㅈ ○○ ●○	ㅊ ○○ ●○	ㅋ ○○ ●○	ㅌ ○○ ●○	ㅍ ○○ ●○	ㅎ ○○ ●○	쓰받침	○○ ○○ ●○
모 음	ㅏ ○○ ○○	ㅑ ○● ○○	ㅓ ○○ ○○	ㅕ ○○ ○○	ㅗ ○○ ○○	ㅛ ○○ ○○	ㅜ ○○ ○○	ㅠ ○○ ○○	ㅡ ○○ ○○	ㅣ ○○ ○○						
	ㅐ ○○ ○○	ㅑ ○● ○○		ㅓ ○○ ○○	ㅕ ○○ ○○	ㅗ ○○ ○○	ㅛ ○○ ○○		ㅜ ○○ ○○	ㅠ ○○ ○○	ㅑ ○○ ○○		ㅓ ○○ ○○		ㅕ ○○ ○○	
약 자	가 ○○ ○○	나 ○○ ○○	다 ○● ○○	마 ○○ ○○	바 ○○ ○○	사 ○○ ○○	자 ○○ ○●	카 ○○ ○○	타 ○○ ○○	파 ○○ ○○	하 ○○ ○○	억 ○○ ○○	언 ○○ ○○	얼 ○○ ○○	연 ○○ ○○	
	열 ○○ ○○	영 ○○ ○○	옥 ○○ ○○	온 ○○ ○○	웅 ○○ ○○	운 ○○ ○○	울 ○○ ○○	은 ○○ ○○	을 ○○ ○○	인 ○○ ○○	것 ○○ ○○					
약 어	그래서 ○○ ○○		그러나 ○○ ○○		그러면 ○○ ○○		그러므로 ○○ ○○		그런데 ○○ ○○		그리고 ○○ ○○		그리하여 ○○ ○○			
숫 자	수표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0 ○○ ○○					
문 장 부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운뎃점 (.) ○○ ○○		말줄임표(...) ○○ ○○			말줄임표(...) ○○ ○○			소괄호() ○○ ○○			대괄호[] ○○ ○○		
영 어	영어시작 ○○ ○○	끝 ○○ ○○	대문자 ○○ ○○	a ○○ ○○	b ○○ ○○	c ○○ ○○	d ○○ ○○	e ○○ ○○	f ○○ ○○	g ○○ ○○	h ○○ ○○	i ○○ ○○	j ○○ ○○	k ○○ ○○	l ○○ ○○	
	m ○○ ○○	n ○○ ○○	o ○○ ○○	p ○○ ○○	q ○○ ○○	r ○○ ○○	s ○○ ○○	t ○○ ○○	u ○○ ○○	v ○○ ○○	w ○○ ○○	x ○○ ○○	y ○○ ○○	z ○○ ○○	아포스트로피 , ○○ ○○	

* '나, 다, 마, 바, 자, 카, 타, 파, 하' 약자뒤에 모음이 이어질 때는 약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 ㅅ, ㅈ, ㅊ, ㅍ, 다음에 약자 영 ㅍ 이 올때는 '영'으로 바뀐다.

[성명서]

금융감독원은 시각장애인의 전자금융서비스를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말라!

금융감독원은 2014년 11월 19일부터 시각장애인이 금융거래 시 점자보안카드와 일반 OTP사용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음성OTP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제작비용을 OTP제조사에게 전가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처사가 이해되지 않는다.

사실상 음성OTP는 민간 OTP제조사를 통해 제작되었고, 시각장애인의 전자금융서비스 이용불편 해소에 공감하여 시연행사에 음성OTP 2천개를 무상으로 기부하였다. 하지만 정작 순이익보다 더 많은 제작비용 부담을 져야 하는 민간 OTP제조사를 경영 위기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다.

이에 시각장애인의 일반 OTP 사용에 관한 불편사항을 접수하고, 은행 및 OTP제조사와 개선 방안을 협의한 만큼 꼭 부담을 해야 한다면 금융감독원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정보접근권은 시각장애인에게 있어 늘 해결해야 하는 숙제와도 같은 일이다. 정보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시각장애인에게도 정보접근성이 유용해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시시각각 변화하는 정보화 사회에서도 여전히 시각장애라는 사회적 제한을 받고 있으며, 그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금융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음성OTP는 비시각장애인과 차별을 두고자 제작한 것이 아니라, 금융거래에 있어 접근이 불편한 시각장애인의 접근성 범위를 넓히기 위해 OTP에 이어폰을 연결하여 일회용 비밀번호 6자리를 음성으로 확인하는 기기이다.

현재 2014년에 보급 받은 음성OTP는 배터리방전 등으로 교체해야 하는 시기이나 일부 은행에서는 기기소진이 되었다며 기기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어 시각장애인은 금융서비스 정보접근권에 심각한 차별을 겪고 있다.

또한 음성OTP는 보급 초기부터 음성 미 출력, 비밀번호 오류 등 기기 고장 및 오류 발생에 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었으며, 원활한 금융거래를 위해 기기 재제작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에 대해 직접 시정명령을 내리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제한하고, 차별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시각장애인은 금융감독원에 의하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권리마저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있다. 그동안 전자금융서비스의 정보접근권 개선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못해 개선책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이 문제는 금융당국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우리 연합회는 시각장애인의 전자금융서비스를 차별하는 정보접근권의 정상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금융감독원이 신중하고도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1. 금융감독원은 기존 음성OTP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새로운 음성OTP 기기를 제작하여 보급하라.
1. 금융감독원은 새로운 음성OTP 제작비용을 OTP제조사에게 전가하지 말고,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라.
1. 금융감독원은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시각장애인이 더 이상 차별받지 않도록 책임을 통감하고, 불합리한 금융서비스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라.

2019년 9월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매년 10월 15일은 ‘흰지팡이 날’입니다.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WBU : World Blind Union)에서 전 세계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정한 날이 있습니다. 바로 10월 15일, 흰지팡이 날(the White Cane Day)인데요. 이번호에서는 흰지팡이 날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흰지팡이 날은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정한 날로써, 리처드 후버(Richard Hoover) 박사가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위해 제작한 흰지팡이의 상징적인 의미를 이용해 이름 붙여졌는데요. 흰지팡이 날 선포문에는 ‘흰지팡이는 동정, 무능의 상징이 아니라 자립과 성취의 상징이다. 전 세계의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과 정부는 이날을 기해 시각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행사와 일반인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계몽을 적극 추진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각장애인들은 언제부터 흰지팡이를 사용했을까요?

1900년대는 세계대전으로 시각장애인이 증가하였던 시기였습니다. 이에 벨리포지 군병원(Valley Forge General Hospital)의 안과 의사였던 리처드 후버 박사는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돕고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도록 흰 색을 칠한 지팡이를 고안하였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흰지팡이는 1931년 캐나다에서 개최된 국제라이온스클럽(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ions Clubs, 국제적사회봉사활동 단체) 대회에서 표준화 기준

이 마련되었으며, 이후 1980년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10월 15일을 ‘흰지팡이 날’로 공식 지정하여 각국에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72년 흰지팡이에 대한 <도로교통법> 규정이 마련되었는데요. 현재 <도로교통법> 제11조에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도로를 보행 할 때에는 흰색 지팡이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로 되어 있으며, 동법 제48조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유아가 보호자 없이 걷고 있거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지팡이를 가지고 걷고 있을 때에는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한다.'로 되어있습니다.

흰지팡이는 시각장애인이 홀로 걸을 수 있다는 자주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흰지팡이를 들고 길을 걷는 것은 독립적으로 보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흰지팡이로 보행하는 시각장애인을 도울 때는 일방적으로 흰지팡이를 잡아 끌면 시각장애인이 당황할 수 있으므로, 미리 말로 설명을 하고 시각장애인이 안내인의 팔꿈치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올해 흰지팡이 날에는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중앙회 주최, 주관으로 진행되는 제40회 흰지팡이 날 기념식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또한 10월 한 달 동안 전국 각지에서 다양하게 열리게 되는데요. ‘흰지팡이 날’ 기념행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각장애인들이 흰지팡이를 지지대로 재활과 자립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더불어 사는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첼로의 아름다운 선율을 전합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김민주 학생**



고혹적인 첼로의 선율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첼리스트가 있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재학 중인 김민주 학생인데요.
이번 호에서는 김민주 학생의 인터뷰를 소개합니다.

Q. 안녕하세요. 첼로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A. 첼로는 초등학교 때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빛명학교를 다녔었는데 그 때 중창단에 소속되어 활동을 했었습니다. 피아노를 6살 때부터 배워 다양한 악기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고, 당시 중창단 지휘자 선생님께서 음감이 뛰어나니 첼로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권유하셔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 지난 6월, UN 뉴욕본부에서 열린 '제12차 UN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의 부대행사에서 첼로 연주를 펼쳤는데요. 어떻게 가게 되었고 어떤 곡들을 연주했을까요?

A. UN 뉴욕본부에는 외교부를 통해서 가게 되었어요. 지난 4월, 다큐멘터리 영화인 뷰티풀마인드라는 영화를 찍게 되었는데, 그 영화를 외교부에서 긍정적으로 봐주셨고, 또 함께 영화를 찍었던 분 중에 외교부에 계셨던 교수님이 계셔서 좋은 기회로 작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UN 뉴욕본부에서 저는 첼로 무반주 솔로곡을 연주했고, 아리랑 협연에도 참여했습니다. 아리랑은 함께 간 심환 기타리스트와 함께 연주했습니다.

회의장 관객들과 무대가 가까워 각 국에서 오신 외국인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 60분 동안 상영한 영화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Q. 서울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번에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입학하기까지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하셨나요?

A. 한국예술종합학교에는 작년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입시를 준비하면서 실기 시험에서 연주할 곡을 끊임없이 연습했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지원을 하면 생활기록부와 고등학교 성적 등도 보지만 음악 이론 시험과 실기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6~7개월 정도는 실기 시험 때 연주할 곡에 매진했던 것 같습니다. 총 8곡을 연주했는데 드보르작의 첼로 콘체르토, 바흐의 무반주 모음곡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Q.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입학하고 다니시면서 가장 큰 도움을 주셨던 분은 누구일까요?

A. 엄마와 교수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첼로는 악기가 크고 또 강북구인 저희 집에서 학교 까지 거리가 꽤 있다 보니 아침에는 엄마의 도움을 받아 등교하고 있습니다. 악기도 엄마께서 옮겨주시고요. 엄마는 지금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때 제가 첼로를 시작하면서부터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시고 계십니다.

또 이화여자대학교 배일한 교수님께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첼로를 배우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제가 잘 할 수 있도록 항상 격려해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첼로를 하면서 힘든 점과 좋은 점이 있다면 무엇 일까요?

A. 첼로는 연주하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시각장애인이다보니 제가 연주하는 자세가 어떤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자세가 쉽게 흐트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악보를 볼 수가 없어 모두 외워서 연주를 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점자 악보를 통해 곡을 익히며 외워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 곡을 숙지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곤 합니다.

그래도 제가 첼로를 연주할 때 관객들이 박수치는 소리를 들으면 이번에도 한 곡을 완성해냈다는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장점입니다.

Q.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앞두고 있는 공연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앞으로의 꿈이 궁금합니다.

A. 오는 10월에는 하트챔버오케스트라와 협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협연이 저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첼로를 연주하면서 갖게 된 작은 꿈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학생들과 발달장애 친구들에게 첼로를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가르쳐주는 것을 받아들이고 발전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고 보람됨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첼로 연주와 학업을 병행하면서 학생들에게 첼로를 가르치는 꿈을 키워나가고 싶습니다.



50대 여성 시각장애인(재한)과 18세 소녀가 함께 걷는 산티아고 순례길, 영화 부엔 까미노



지난 8월 17일부터 8월 25일까지 메가박스 일산벨라시타와 구름아래소극장에서 제 16회 EBS국제다큐영화제가 열렸는데요. 이번 호에서는 다큐영화제에서 화면해설 현장 방송으로 상영한 영화 ‘부엔 까미노’를 소개합니다.

영화 ‘부엔 까미노’는 50대 여성 시각장애인(재한)과 18세 소녀(다희)가 함께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며 벌어지는 일들을 다큐 형식으로 그려낸 영화인데요.

재한은 사물의 어렵풋한 형상만 겨우 보일 정도의 1급 시각장애인 안마사입니다. 그녀와 함께 동행하는 소녀 다희는 대안학교 졸업을 앞둔 평범한 10대 소녀입니다.

재한은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 목적지인 콤포스텔라 대성당 광장에서 자신만의 플라멩코를 선보이는 것이 꿈인데요. 이 막연한 꿈의 행보를 다희가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연한 동경으로 시작해 떠난 순례의 장정은 예상보다 혹독하게 다가왔고, 가파른 피레네 산맥은 자신의 인생을 반추하게 만듭니다. 또 세찬 비바람이 몰아쳐 재한이 여정을 포기하려 할 때에 어린 다희는 재한에게 끝없는 격려와 용기를 보냅니다.

두 사람은 순탄치만은 않은 순례길을 걸으며 ‘come to meet yourself’라는 글귀를 만나게 되고 ‘나 자신을 만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눈물과 춤과 음악, 감정에 충실한 인간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 산티아고 순례길의 길고 긴 여정 끝에 재한과 다희는 결국 콤포스텔라 대성당 앞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회한과 감격의 오열을 마치고 재한은 광장 한복판에서 붉은 드레스를 입고 그렇게 소원이었던 플라멩코를 추게 됩니다.

‘부엔 까미노’는 단순히 순례길을 걷는 여정만이 아닌 우리 인생을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영화의 마지막에서 재한이 붉은 드레스를 입고 춤을 출 때에는 재한이 장애인으로 살아왔던 시간이 주마등처럼 흘러가면서 관객들을 감동으로 이끌었는데요. 영화를 보고 난 관객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 다시 한 번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삶이 힘들고 지칠 때, 인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영화, ‘부엔 까미노’로 힐링하시는 건 어떨까요?



커피와 디저트 박람회에 다녀와서

류재성(시각급_서울특별시 종로구)

교육공무원 생활을 하는 나는 주말과 방학을 이용해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이 생활의 즐거움이다. 그 중 여행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말을 이용해 코엑스에서 실시한 의류기기과 건강식품 박람회가 제일 기억에 남는다. 그래서 올해도 이전에 가보지 못 했던 또 다른 박람회를 찾아보았는데 커피와 디저트 박람회가 있었다. 그래서 지난 4월 13일 토요일에 코엑스 '커피와 디저트' 박람회를 다녀왔다. 2019년 4월 11일 목요일부터 14일 일요일까지 한국커피연합회에서 주관한 서울 커피 엑스포가 코엑스 A, B 홀에서 개최되었다. 입장권은 인터넷에서 15,000원 정도에 구입한 것 같은데 코엑스 앞에 와보니 초대권을 5,000원에 팔고 있었다. 초대권을 구하거나 5,000원에 구입했다면 훨씬 저렴하게 관람할 수 있었는데 왠지 사기당한 느낌이 없지 않았다. 삼성동에 위치한 코엑스는 교통이나 건물 내부가 이동하기 편리했던 곳이다. 코엑스에서 커피 시음과 디저트 시식을 했던 것은 또 다른 즐거움을 불러 일으켰다. 다양한 맛의 느낌은 마치 외국에서 처음 먹어보는 음식과도 흡사했다.

그래서 나름 인상적이었던 것들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한다.

처음으로 떠오르는 것은 이색적으로 여겨진 과일맥주 브랜드이다. 벨기에에서 수입된 체리맛, 라즈베리맛 과일맥주가 있었는데 신선한 느낌이 들어 바로 구입을 했다. 만 원에 3병을 샀는데 맛도 괜찮았다.

또, Ome는 제주 수제 오메기떡 브랜드인데 오메기감귤, 누드감귤과 같은 제주 특산 감귤을 재료로 만든 오메기떡과 녹차, 한라봉, 치즈, 모카, 복숭아, 딸기, 땅콩, 고구마, 우유, 오메기, 망고, 레드키위 등의 재료들로도 다양한 맛의 오메기떡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였다. 신기한 느낌에 10개 정도를 종류대로 구매했다. 원래 오메기떡을 너무 좋아해서 이것도 맛이 좋을 줄 알았는데 한 개에 2,500원 정도로 생각보다 가성비가 좋지 않았고 크림빵을 먹는 듯 했다. 다음에는 그냥 원조 오메기떡만 사기로 했다.

그리고 Rocio라는 에스프레소 머신(커피 추출 기계) 브랜드에서 갓 추출한 커피를 맛보기 위해 대기줄을 섰는데 30분이나 걸렸다. 그러나 그런 무료함도 이기게 해줄만한 부드러운 향미였고 무료여서 그런지 라떼가 더 맛이 있었다. 커피 맛을 잘 모르지만 좋은 기계와 원두를 통해 갓 나온 커피임을 증명하듯 그 향과 맛의 느낌은 아주 괜찮았다.

그 다음에는 포도주 시판대에서 여러 가지 포도주를 시음해 보았다. 그 중에서 가장 끌리는 것은 이탈리아산 포도주인데 내가 좋아하는 달달한 맛이였다. 포도주가 시큼하거나 텅텅해서 개인적으로는 달달한 포도주를 좋아하는데 한 병에 삼만 원이라고 했다. 판매하시는 분도 이 포도주를 잔뜩 쟁여 놓고 집에서 드신다고 했다. 마음이 끌리기는 했는데 가격이 좀 비싼 것 같아 망설이다가 좀 생각하고 다시 오겠다고 했는데 그만 잊어버리고 집에 돌아왔다. 사지 못 한 것이 후회되었는데 브랜드 명도 기억나지 않아 내년에 기회가 되면 다시 박람회에 가서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4월 20일에는 학여울역에 위치한 setec에서 개최하는 서울 디저트 박람회를 다녀왔다.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벚꽃과 체리'라는 제목으로 개최되었다. 입장권이 5,000원이었다. setec박람회는 세 가지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먼저, 첫 번째 구역에서는 많은 디저트 부스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다양한 종류의 디저트들이 시식 체험과 식품 판매를 하고 있었다. 각종 음료와 아이스크림, 도라지 정과, 고구마 말랭이, 곤약젤리, 강정, 쿠키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빵, 마카롱 등이 길게 줄지어 판매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나는 고구마 말랭이, 곤약젤리가 마음에 들었다. 전시장을 둘러보다가 이것저것 사다보니 칠만 원 정도 산 것 같았다. 생각해보니 좀 과소비를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했다. 코엑스보다 더 많은 디저트들이 있어서 잘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두 번째 구역은 푸드 트럭 구역이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의 음식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다양한 종류의 음식들만큼 점심시간이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붐비고 있었다. 그래서 음식들을 사기 전 먼저 자리를 구해야 했고, 간신히 잡은 자리에 앉아서 케밥과 사이다를 먹었다. 케밥에 대한 호기심에 얼른 한 입 베어 물었는데 좀 뻑뻑한 느낌이 있었다. 전문 음식점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음식 코너여서 그런지 맛은 별로였다. 그래도 맛있게 식사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의 흔적을 테이블에서 치우고, 다음 구역으로 이동했다.

마지막 구역은 가장 넓었던 수공예 구역이었다. 사람들의 흥겨운 소리가 한 층 더 들려왔다. 하지만 나는 수공예품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서 간단하게 관람을 마치고 건물을 나왔다. 따뜻한 햇살과 맑은 공기가 강하게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와서 사왔던 여러 가지 식품들을 부모님에게 보여드렸는데 어머니께서는 그 중에서 도라지정과를 꽤나 맛있어 하셨다.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더 살 수 있다고 했더니 비싸다며 사양하신다. 도라지를 오래 써서 콩가루를 묻힌 것이 어머니는 아무래도 예전 음식들을 선호하셔서 그런지 입에 맞으셨던 것 같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니까 당달아 나도 기분이 좋아졌다.

내년에 다시 디저트 박람회가 열린다고 한다. 기회가 되면 다시 가보고 싶다. 사지 못한 것들을 꼭 사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시각장애인 엔지니어, 시각 장애인을 돕기 위해 Google지도를 사용하는 '스마트 지팡이' 제작!



쿠르샷 세일란은 위워크 스마트 지팡이 시각 장애 엔지니어입니다. 그는 스마트 지팡이 뒤의 비영리 단체인 터키의 젊은 전문가 아카데미의 CEO이자 공동 설립자입니다.

지팡이는 시각장애인이 허리 아래의 장애물을 감지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위워크는 초음파 센서를 사용하여 가슴 높이 이상의 장애물을 감지하고 사용자에게 진동을 사용하여 경고합니다. 휴대 전화와 페어링 할 수 있으며 음성인식을 통하여 Google지도와 통합됩니다.

스마트 지팡이에는 스피커를 사용하는 사람이 근처에있는 상점이나 주변에 대한 세부 정보를 지팡이를 사용하여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알리는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어 시각장애인이 음성 안내를 받아 외출 할 때 더욱 원활하게 이용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각장애인 미용크리에이터 샘 라티프 씨



미국의 아랍계 출신 여성 샘 라티프 씨는 지난 10년 동안 한 다국적기업의 미용 제품들을 판매하는 회사에서 미용크리에이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미용크리에이터라고 하면 비시각장애인을 떠올리실 텐데요, 라티프 씨는 시각장애인입니다.

라티프 씨는 이 회사의 다양성 이니셔티브 책임자로 이곳에서 생산하는 각종 미용 제품을 어떻게 하면 시각장애인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 연구하는 일을 하는데요.

라티프 씨가 디자인한 제품 중에는 샤워할 때 사용하는 각종 병에 촉각 알림을 넣도록 설계한 것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라티프 씨는 “시각장애인들도 쉽게 미용 제품을 구별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회사에서 이러한 시도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는데요.

한국의 미용시장에서도 이와 같은 상품 출시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NEWS



**제33회 편의시설 점검자
양성교육 실시!**

지난 9월 18일에서 20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는 '제33회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점검자 양성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17개 시·도의 지역 전문가를 양성해 올바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인력의 저변을 확대하고 보다 전문적인 지역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이론교육은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의 종류와 기능, 장애인등편의법 편의시설 구조 재질에 관한 세부기준(공공건물)등의 강의로 이루어졌으며, 실제 현장에서 교육 받은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도록 공공건물과 여객시설 및 인근 보도에서 실습과 테스트도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교육 참가자들은 이를 동안 받은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돌아가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꼭 응용해 볼 것이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파랑에이전시,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과
'크크키키 어린이 체험동화'
업무협약 체결!**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관장 임종혁)은 18일 파랑에이전시(대표 성기범, 성백찬)와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크크키키 어린이 체험동화'의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진행되는 '귀로 읽고 손으로 보는 그림책' 프로그램에서 시작된 것인데요, 시각장애 아동들의 집중력과 상상력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기 위해 파랑 에이전시에서 자체 제작한 음원과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파랑에이전시 성백찬 대표는 "귀로 듣는 동화와 다양한 소리 자극이 시각장애 아동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중요한 교육 활동이 될 것 같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문소라 사회복지사는 "프로그램에 다양한 콘텐츠의 동화와 음원을 사용하니 시각장애 아동들의 집중력이 확실히 향상되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2019년 보행지도사 실습교육 실시!

지난 9월 21일(토)~22일(일), 9월 28일(토)~29일(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총 4회에 걸쳐 보행지도사 실습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보행지도사 실습교육은 필기시험 합격자 6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강당 및 실외장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1일 7시간 교육과 전체 및 조별로 나누어 교육을 받았습니다. 1일과 2일차에는 보행기 초기술과 실외 직선보행이 3일과 4일차에는 촉각 지도 제작 및 활용, 버스 및 지하철 이용하기와 회전문/에스컬레이터 이용하기 등의 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참가자 분들은 10월 19일에 있을 실기시험에서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추석맞이 시각장애인 남산 가을 산책 즐겨!

지난 9월 10일,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는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450명의 시각장애인과 함께 남산산책로에서 추석맞이 가을 산책을 즐겼습니다. 이번 가을 산책은 시각장애인 간에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였는데요, 색소폰, 하모니카 공연과 더불어 함께 친목을 도모하며 식사하는 자리 등이 제공되었습니다. 산책에 참가한 시각장애인들은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산책길이라며 즐거워했는데요, 추석맞이 가을 산책으로 몸과 마음의 건강 둘 다 챙길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대해주세요!

시각장애인을 만나면 의식적으로 '본다'라는 말을 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연령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무조건 말을 낮추거나 지나치게 친절을 표하기도 하는데 이런 방법은 오히려 시각장애인 당사자에게 실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평소와 같은 감정과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말을 주고받는 게 훨씬 좋습니다. 함께 가다가 멋진 풍경이 나올 때나 일상적으로 시청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 등 아무것이나 좋습니다.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의식은 되도록 갖지 않고 대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후원안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전국 50만 시각장애인의 복리향상과 권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각장애인 대표 단체입니다. 후원자의 정성된 사랑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소중히 쓰일 것이며 후원자의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18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로번호 7608162

계좌번호 (예금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신한은행 140-001-911645 국민은행 835-02-0114-768, 497801-96-200273

우리은행 428-04-103943 하나은행 757-810001-08405, 247-890007-44704



서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KOREA BLIND UNION

손으로보는세상 2019년 10월 231호

발행일 2019년 10월 15일 발행처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발행인 홍순봉 편집 김나을

주소 07236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601호

T 02.799.1031 F 02.799.1017

홈페이지 www.kbuwel.or.kr

한글도메인 시각장애인.kr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kr

디자인 한국엠디 02.867.1921

캘리 모노D